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아버지 이어 국제 항공사 앞에 서다

(故 조양호 회장)

IATA 연차총회 기자 간담회

상속 관련 문제, 별도 유언 없어 가족간 화합해 협의는 잘 진행중 항공업계 위상 높이기 최선 다할 것

“상속과 관련해 별도 유언은 없었...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한항공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상속과 관련된 가족 간 갈등설에 대해 “선대 회장(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는 바람에 특별히 말

씀은 많이 못 하셨다.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족 간에 화합해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들 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됐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BOG) 위원으로 선출됐다.

IATA 연차총회는 항공업계 유엔 총회로 불리는 국제 항공업계 최대 행사다. 결의안 채택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

한 승인이 이뤄지는 핵심 회의체다. 이번 서울 연차총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전 세계 항공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행위원회는 IATA의 활동방향은 물론 산하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사무총장 선임, 연간 예산, 회원사 자격 등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달 작고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6년부터 8회 연속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현재 항공업계는 LCC의 약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조 회장은 “LCC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는 LCC 도약에 맞서 보다 과감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또 대한항공 자회사이자 LCC인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난해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보고,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국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따른 항공업계의 영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 현재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IATA 개막식에서 서울총회 의장으로 선출되

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당초 조양호 전 회장이 총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그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대한항공 CEO이자 아들인 조 사장이 자리를 이었다.

조 회장은 지난 1일엔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의 초대 회장단회의 의장으로도 선출됐다. 스카이팀은 지난 2000년 대한항공 주도로 설립된 기구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스타 얼라이언스와 함께 양대 국제 항공동맹체로 불린다.

조 회장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대한항공이 그동안 항공업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빠른 타이핑... 그래픽 전문가용...

라이프 스타일 맞춰 PC도 변신

삼성전자, 신제품 3종 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PC 신제품 3개 모델을 10일 출시한다.

우선, 삼성 노트북 7(첫 번째 사진)은 외관에 알루미늄 메탈 소재와 다이아몬드 공법을 사용하고, 전면 디스플레이부 전



체에 고급스러운 글래스 소재를 적용해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삼성 노트북 7은 기존 자사 제품 대비 키캡이 10% 넓어진 ‘래티스’ 키보드를 탑재해 더욱 정확하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며, 39.6cm 모델에는 기존 대비 21% 넓어진 터치패드를 적용해 편리성을 높였다.



특히 33.7cm 모델은 13.7mm의 얇은 두께와 1.29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으며, 6.97mm의 슬림한 베젤과 170도의 넓은 시야각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어느 방향에서도 한층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삼성 노트북 7은 39.6cm, 33.7cm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97만~181만원이다.

삼성 노트북 7 포스(두 번째 사진)는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일반 노트북 제품 대비 그래픽 성능을 강화했다. 3D 모델링, 동영상 편집 등 전문가 수준의 그래픽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추가 저장장치 탑재가 가능한 트



리플 스토리지 슬롯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NVMe SSD 2개와 HDD 1개의 슬롯이 탑재돼 빠른 속도와 대용량 저장 공간에 대한 필요를 모두 충족한다. 삼성 노트북 7 포스는 39.6cm 디스플레이 모델로 출시되며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62만~210만원이다.

삼성 올인원(세 번째 사진)은 공간 활용도를 높인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일체형 PC다. 삼성 올인원 제품 뒷면의 HDMI 포트는 양방향으로 지원하며, 측면의 외부입력 전환 버튼을 통해 모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확장 모니터를 추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드를 변경하면 PC, 셋톱박스, 게임콘솔 등을 연결해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올인원은 60.5cm 디스플레이 모델로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세부 사양에 따라 75만~133만원이다.

삼성전자는 PC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9일까지 11번가와 네이버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SSD, 메모리 추가 장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선착순 777명에게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대한항공, 까다로운 의약품 수송에 날개

IATA 국제 인증 ‘CEIV 파마’ 취득 온도 조절·비상상황 등 절차 수립

대한항공이 온도 관리가 까다로운 의약품 수송에 나서며 항공화물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섰다. 특히 전세계 의약품 항공화물 수송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항공 화물로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인 ‘CEIV 파마(Pharma)’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IATA의 ‘CEIV Pharma’는 의약품 항공 화물 운송업체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세계적인 운송 전문가들이 의약품 운송 절차와 보관 시설, 장비 및 규정 등 280여 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까지 CEIV Pharma 인증을 받은 업체는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전



노상석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이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18개 항공사와 물류관리업체 등 총 220개사로 대한항공이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의약품 운송 서비스 인증 획득을 통해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의약품 항공 운송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4%의 시장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차세대 물류 분야다.

의약품은 일반 화물과는 다르게 백신이나 인슐린처럼 상온에서는 변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저온 운송,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등 취급 난이도가 높다. 대한항공은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온도 관리를 위해 화물 터미널의 냉장, 냉동, 보온 창고 등 온도 조절 시설의 출입문 개폐 상황과 화물 입고량에 따른 온도 변화는 물론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시설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수립했다.

/양성운 기자 ysw@

8K 올레드TV, ‘1000만원 할인’ 예약판매

LG전자, 출하가 5000만원에 선배

LG전자가 8K TV 시장 출시표를 던졌다. 올레드 TV 중에서는 처음이다. LG전자는 1일부터 8K 해상도 시그니처 올레드 TV(OLED88Z9K)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크기는 88인치다. 스스로 빛을 내는 3300만개 화소를 사용했으며, 올레드 특성상 섬세한 색표현과 완벽한 블랙 재현이 가능하다.

특히 독자 개발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8K 프로세서는 통해 화질과 사운드도 스스로 최적화해준다. 노이즈를 6단계까지 제거해 어떤 영상도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다.

LG전자는 6월 예약판매를 진행한 후 오는 7월 8K 올레드 TV를 한국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출하가는 5000만원, 예약 판매 기간에는 4000만원으로 할인하고 LG오브제 가습공기청정기를 사면 품으로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8K 올레드 TV

/LG전자